

역사소설을 통한 역사 읽기

《람세스》를 다시 읽으며

주명철

한국고원대 교수, 역사교육학과

역사소설은 재미있지만, 작위성 때문에 독자에게 실망을 안겨 줄 때가 많다. 그것은 역사소설에서 주인공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 일을 향하여 모인다는 식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소설은 “오늘이 어제의 유일한 미래”인 것처럼 서술한다. 기정사실의 원인을 모두 과거에서 찾아내고,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이 과거 속에서 예언하는 방식을 역사학자는 경계하는데, 역사소설은 이러한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작위

따라서 《람세스》가 역사라면, 가장 저급한 역사책이다. 그러나 《람세스》는 역사소설이다. 역사소설에서 적당한 창조는 오히려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고도의 기술이 될 수 있다. 저자는 고대 이집트 전문가답게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을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다신교 시대의 수많은 상징을 물질로 표현하는 고대인의 기술과 재력, 또한 궁중생활은 물론, 서민들의 생활과 국제관계까지 《람세스》는 잘 보여주었다. 현실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작위를 통해서 말이다.

사건과 음모는 많은데, 그 실마리를 쫓아 사람이 모두 체포과정에서 죽는다는 설정, 사르디니아 출신의 해적이 람세스에게 투항하는 장면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만일 세라마나의 투항장면(1권 467쪽)을 통해서 플라투르쿠스의 <열전>에서 케사르가 골지

《람세스》는 역사소설이다. 역사소설에서 적당한 창조는 오히려 당시 분위기를 설명하는 고도의 기술이 된다. 작가는 고대 이집트 전문가답게 고대인의 기술과 재력, 궁중생활과 서민생활, 국제관계까지 잘 보여주고 있다. 현실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작위를 통해서 말이다.

역사소설을 읽을 때 독자는 작가의 관점에 놓이어서 안된다.



방의 족장에게 항복을 받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은이가 고대인의 서술 방식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너그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람세스》를 읽고 역사를 배우려는 사람은 역사와 허구를 구별해야 한다. 트로이전쟁에 중군한 호머가 이집트에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다는 설정은 완전 허구다. 특히, <오디세이>는 트로이전쟁이 끝난 뒤 10년간의 모험을 다루는 작품인데, 어찌 호머가 이집트에 앉아서 쓸 수 있었을까? 또한 해적질을 하던 사르디니아 출신이

히타이트에게 문서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완전 허구다. 신성문자나 췌기문자는 해적질을 하던 사람이 궁정에 들어 왔다고 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작가의 관점에 휩쓸리지 않게

그러나 역사소설을 읽을 때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독자는 작가의 관점에 놓이어서는 안된다. 비록 소설에 나온 주인공이 약당, 독재자, 파렴치범이라 할지라도, 작가는 그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독자

는 거기에 감동받기 쉽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역사소설의 독자가 모두 작가에게 놓이아지 말았으면 한다.

특히 올여름, 람세스·케사르·박정희·이방원의 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호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보다 으시한 납량특집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역사적 인물이 이룬 업적은 무엇을 대가로 한 것인지, 그는 전체 속에서 누구를 대표하는지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

현대의 철학적 인간학

K. 로렌츠 지음/강학순 옮김/224면/7,500원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기 위한 필독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20세기에 출발한 철학의 한 분과인 철학적 인간학에 관한 모든 입장을 저자 자신의 고유한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 정리한 인간학 분야의 최신 연구서이다.

중국 도가(道家)의 음악사상

한홍섭 지음/304면/10,000원

서광사의 철학박사학위논문시리즈 제13권인 이 책은 무위적인 자연음(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이야말로 음악음의 근원이라 생각하는 도가의 음악사상을 유가의 음악사상과의 대비를 통해 그 의의와 특징을 부각시켰다.

현대 분석 철학

M.K. 무니츠 지음/박영태 옮김/752면/28,000원/양장

현대 분석 철학의 개괄적인 입문서. 시대별로 분석 철학의 대표적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상과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퍼스의 이론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대 분석 철학과의 접목을 꾀하고 있다.

플라톤의 국가·政體

플라톤 지음/박종현 옮김/720면/26,000원/양장

플라톤의 대화편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회람어 원전 역주서. 서광사의 회람 고전 출판 기획 가운데 첫번째 결실로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한 번역어 선택, 꼼꼼한 주석 작업과 수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친 역작.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